



2018년 9월 2일(제891호) 연중 제22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근본정신을 잊은 법과 전통에 대한 일침”

국가와 사회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과 공동체는 그 근간을 유지시키는 전통이 존재합니다. 법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고, 전통으로 인해 각기 고유한 문화와 가치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교에도 법과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으므로 신앙인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고, 종교의 본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의 오랜 전통은 우리 믿음의 진리와 가치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해 줍니다. 이처럼 국가나 민족이나 교회나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법과 전통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한 자, 한 획도 없애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 새겨들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법과 전통이 존재하는 이유, 곧 그 근본정신을 잊은 법과 전통은 우리를 옳아매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법과 전통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유연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식사 전 손을 씻어야 하는 규정과 관습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 스승인 예수님께 질타하는 모습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물수건을 주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중시하며 그것으로 예수님을 옳아매려 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법과 전통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법과 전통이 존재하는 근본정신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근본정신 위에서 법이 제정되고, 전통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렇게나 힘차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법과 전통의 근간인 그 정신이 그들에게는 이미 잊혔기 때문입니다. 근본정신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법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요, 전통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버리는 방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라는 말씀을 새기며 교회법전 가장 마지막 항인 1752항을 나누어 봅니다.

“(…)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영혼들의 구원(Salus Animarum)’, 이것이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 교회의 근본정신이 아닐까요?



이재경(시도요원) 신부
인천해군(해군 안병사)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신명 4,1-2.6-8
- 회 답 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제 2 특 시 야고 1,17-18.21ㄴ-22.27
- 복음 본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복 음 마르 7,1-8.14-15.21-23
- 영 성 제 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김시우 알렉시오



성인명: 김시우 알렉시오 (金時佑 Alexis)

신분: 양반, 독신, 순교자

활동연도: 1783-1816년

일명 ‘시회’ 혹은 ‘시우재’라고 하는 김시우(金時佑) 알렉시오는 1783년 충청도 청양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디 그는 성품이 착하고 어질었으며, 어느 정도 학식도 있었다. 그러나 오른쪽 몸이 반신불수인 탓에 혼인할 수가 없었고, 일하기가 어려워 가난하게 생활해야만 하였다. 일찍이 고향 인근에 전해진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김 알렉시오는 열심히 신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누이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우들에게 교리를 설명해 주거나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가난하였으므로 이곳저곳으로 교우들을 찾아다니며 애공을 받아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때때로 왼손으로 교회 서적을 필사하여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고 약간의 돈을 얻기도 하였다.

김 알렉시오는 고향을 떠나 교우들이 살고 있는 진보 머루산 교우촌(현, 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다가 1815년 초에 일어난 을해박해 때에 포졸들이 쳐들어와 교우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자, 자원하여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밝히고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이때 그는 포졸들에게 “나도 천주교 신자인데 병신이라서 잡아가지 않는군요?”라고 울면서 말하였고, 함께 체포해 가기를 원하였다고 한다. 안동으로 끌려간 김 알렉시오는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그가 보여준 굳건한 신심은 형리들조차 칭찬할 정도였다.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는 천주교의 주요 교리를 박해자들에게 이해시켜 주려는 노력까지 하였다.

이렇게 신앙을 증언한 김 알렉시오는 동료들과 함께 대구로 압송되어 다시 문초를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다시 한번 천주교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하시려고 수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서도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흠송하고, 천주교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감사는 김 알렉시오에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여 그의 턱을 부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형 선고문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다음 옥으로 돌려보냈다. 옥에 갇힌 김 알렉시오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구할 수도 없었다. 다른 죄수들처럼 음식과 바깥 쉼을 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대구로 이송되어 온 지 약 2개월 만에 굶주림과 형벌의 상처 때문에 옥사하고 말았으니, 이때가 1816년 음력 10월 21일 이전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해보고 싶다

이렇게
그냥 물 따라
흔들흔들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물흐름에 몸을 맡겨
흘러보고 싶습니다.



상화이야기

수태고지



1437-1446년경 완성
 프라 안젤리코(1400-1455)
 프레스코화
 신미르코 수도원, 피렌체

르네상스기의 피렌체는 걱정적이고 야심에 찬 장소였다. 그런데 산 마르코의 수도사들이 그러한 바깥세상의 활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중략) 수도원의 높은 계단 끝에 있는 수도사의 방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자유롭게 순수하고 행복했으며, 속세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 이는 순전히 프라 안젤리코의 작품들 때문에 든 생각이다. (중략)

공작의 깃털처럼 눈부신 날개를 달고, 분홍색과 금색이 섞인 옷을 입고 있는 천사는 확신에 찬 듯이 보이는데, 지금 이 날씬한 소녀 앞에 몸을 숙이고 그녀에게 환영의 말 Ave를 건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환영의 말과 침묵에 대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는 문자적 의미로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이지만, 엄숙한 의미로 '아베마리아'라는 표현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말 없음에 대한 그림처럼 보인다. 그림 속의 두 사람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환영의 말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별다른 가구나 장식이 없는 마리아의 거처는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낮은 담장 너머로는 바깥세상의 소란함과, 제멋대로 자란 나무, 높은 산이 있고 담장 안쪽으로는 작은 꽃들과 조용한 기도의 즐거움이 있다. 프라 안젤리코는 환영의 말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공간을 벗어나지 말 것을 동료수도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각자의 방에 가서 기도하고, 신과 함께 침묵하라고 권하고 있다. 부질없는 잡담이나 잡기(요즘으로 치면 할 일 없이 텔레비전이나 보는 것과 비슷한)로는 신의 부름을 들을 수 없다고. 말에서든 생각에서든, 아니면 행동에서든 잡음은 어떤 식으로든 신이 부르는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한다. (웬디 수녀의 유럽미술 산책, p49-51에서 발췌함)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흥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2주일: 소성 이원근 신부

◆ 교구장 동정

- 공군중앙(항공안전단) 성당 사목방문
 때: 9월 2일(주일)

- 회의

- 때·곳: 9월 4일(화), 교구청 회의실
- 국장회의 11:00, 사제평의회 14:00, 참사회의 16:00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 때: 9월 6일(목) 18:00
-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군 복음화, 번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